

[보 도 자 료]

49,052명의 청소년이 외친다!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2024년 12월 1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수신 : 언론사 정치·사회부

일자 : 2024년 12월 10일

발신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문의 : 공현 010-2840-3328 , yhr.jieum@gmail.com
수영 010-2798-2887 , asunaro@asunaro.or.kr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령’ 이후, 12월 4일 오후부터 12월 9일 오전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모집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국선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만 19세 이상 비(非)청소년, 지지하는 단체들로 구분하여 모았으며, 총 청소년 49,052명, 비청소년 950명, 지지 단체 123개가 참여했습니다.
3. 시국선언 제안 단체들이 애초 목표한 인원은 청소년 1,000인의 참여였습니다. 그러나 4일 동안 누적 참여 시민(비청소년 포함)은 50,002명으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참여의 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의 규모가 5만 명 이상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로,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4. 청소년 시국선언에는 청소년들이 개인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모임, 학생자치모임 등의 명의로 참여한 점이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교의 역사동아리, 토론동아리, 일러스트동아리 등의 명의로도 참여했으며, 지역 단위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회 명의로 참여한 곳들은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블루’, 성미산학교 학생회, 용화여자고등학교 제35대 학생자치회 한빛 등을 비롯하여 8개였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각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특별시 8529명, 경기도 18312명, 인천광역시 3620명, 강원도 1280명, 충청북도 1165명, 충청남도 1553명, 세종 481명, 울산광역시 1227명, 경상북도 1175명, 경상남도 3355명, 대구광역시 1363명, 부산광역시 3025명, 전북 1481명, 전라남도 840명, 광주광역시 1382명, 제주 717명입니다.
5. 청소년 시국선언은 12월 1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12월 11일 오후 5시 30분 서면특화거리 하트조형물 인근 퇴진 집회 장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 서

- 청소년 시국선언 준비 과정 설명
- 청소년 시국선언 참여자들이 남긴 의견 소개 : 빈둥(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청소년 발언 1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청소년 발언 2 : 이은우(한국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
-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낭독

5.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함께한 단체들은 이후 청소년들과 함께 행동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려 합니다. 비상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시국선언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민주적 정치활동을 금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은 폭력으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장면이었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핑계 삼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협박하려는 시도였다. 우리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긴 비상계엄은 시민들과 야당의 대처로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단체가 표적 수사를 당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두발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는 인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사람을 앉혔다. 윤석열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 한다.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유예당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살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비상계엄”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과 군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와, 시민들이 저항하여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왔다. 3.1운동과 4.19부터 박근혜 퇴진까지, 독재가 아닌 시민이 대표자를 뽑는 나라 그리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지금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10일

청소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명단 별도 공개)

청소년 시국선언 청소년 연명 명단 : <https://nuly.do/5mjQ>

청소년 시국선언 비청소년 연명 명단 : <https://nuly.do/kDVn>

청소년 시국선언 단체 연명 명단 : <https://nuly.do/se5W>

붙임 2. 발언문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반갑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수영입니다.

청소년-시민들은 지난주 간밤에 자행된 윤석열의 '3시간 계엄 천하'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할까 노심초사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기에 퇴진광장을 함께 열어젖히고 있는 청소년들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계엄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고, 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인권과 소수자 차별의 대표적인 인물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하고, 성인권교육을 비롯한 청소년정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윤석열의 만행을 나열하려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반인권, 반민주 정권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이들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향에 더욱 극단적으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이번 청소년 시국선언에는 4일만에 5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런 폭발적 참여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주권자이자 동료시민인 청소년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의 나다울 권리를 위해, 또 지금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과 착취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회와 문화에 저항하는 아수나로는 어린 사람들과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끝장내고 모든 민중이 평등한 청소년 해방세상으로의 체제전환을 기필코 쟁취하겠습니다.

현재의 시민인 청소년도 무서웠다,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청소년이 명령한다, 반인권, 반민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은우(한국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YWCA에서 활동하고 있는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이은우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고2 청소년이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날이었기에,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상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황당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교과서를 통해 수없이 배웠던 계엄령이었기에 두려웠습니다

계엄령이 해지되어도 여전히 황당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틈만 나면 뉴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함이, 이해되지 않음이 엄습하는 두려움이 온전히 나의 것이기에, 우리의 것이기에

오늘 학교가 아닌 이곳으로, 대전이 아닌 서울로 나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들은 4.19, 5.18,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배웠습니다. 또한 2016년 수많은 촛불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선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인권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지금 교과서 속에서만 간혀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어디에 있나요? 보호받지 못한 인권만 마주하였습니다.

역사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해 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부 수장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위협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말합니다. ‘제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퇴진하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도 한마디를 전합니다. 저는 특별히 토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지도 않고 나오는 그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전하라고 뽑았더니 그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말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어쩌면 이 일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폭력적인 권력 남용을 이미 윤석열과 국회가 일삼아 온 청소년, 여성,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청소년,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문하고, 정책에서 청소년과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폭력적인 권력 남용, 이것의 전제가 된 혐오와 차별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혐오와 차별에 대한 관용의 결과를 마주한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엔 청소년을 향한, 여성을 향한 평등과 존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현재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춥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겨울의 시작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에,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같이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즉각 물러나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책무를 감당하지 않은 국회, 지금 반성하라!

청소년 선언 참여자들의 의견 대독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둥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49,052명이라는, 유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시국선언에 청소년 분들께서 남겨주신 의견을 대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신 만큼 대독할 말들을 고르기도 어려웠는데요. pdf 파일로 보니 그 양이 무려 1442쪽에 달했습니다. 퇴진 언급 441번, 하야 언급 130번, 사퇴 언급 66번, 의견란에 추가로 언급되었습니다. 시국선언 참가 자체로도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위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윤석열 퇴진에 대한 언급이 특히 강조된다는 점은 12·3 내란 사태에 관해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갖는 조건에 살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가해주신 청소년 분들 중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비록 투표권은 없어도 나도 국민이다”, “저희가 투표권이 없지 발언권이 없습니까?”,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주는 시국선언이 존재함에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마냥 어리고, 미숙하고, 기특하고 대견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이 타인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조직화 된 공적 공간의 부재와 제도적으로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람을 담아 다음으로 10개의 의견 대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은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무도한 이가 적절한 죗값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삶을 원한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지도, 빼앗길 위험도 없는 우리만의 삶을 원한다.

2. 어른들은 시위에 나가겠다는 말을하면 조롱과 함께 비웃기만했습니다 학생이 무슨 정치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학생들의 피해도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곳이 꼭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3. 투표권이 없다는 생각에, 어른들이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는 말에 현 시국에 관심을 가지는데 괜히 주눅들곤 했습니다. 뭘 해봤자 어른들 눈에는 '애들이 뭘 알아' 같은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 친구들과 정치와 집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내가 조금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청소년도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다시 알게 되었어요.

4. 어른들에게 청소년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늘 윤석열은 청소년을 신경쓰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도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은 한개도 없었다.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대통령때문에 이렇게 왜 피해를 받아야 하나. 학생들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면 큰 실수다.

5. 우리는 배웠다.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왜 군사독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 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소수자에게 연대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줄 알아야 하는지. 그러나 글로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얼마나 무용한가. 함부로 보이지 말라 명령받은 소신은 얼마나 무력한가. 우리가 거리로 나오는 것은 지난 12년을 쓸모없었던 세월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그토록 싫어해온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는 더이상 침묵하지도, 침묵을 종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6. 저는 ○○고등학교 학생 대의원회 의장입니다. (윤석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파괴위원회로 전락시켜 학생인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등교 시 학생 전자기기 강제수거에 대한 기존 결정을 뒤집도록 한 공범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2 회고사 기간에 압박하여 위헌적인 계엄을 갑작스럽게 선포함에 따라 등교 관련 문의가 교육청에 다수 발생하는 등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모든 정치활동을 제한하여 학교 학생자치회 활동 마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2 회고사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대의원회 회의 등 다양한 활동 마저 금지될 뻔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에서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써 선택의 결과로 생긴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바꾼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도 국민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라는것이 있다면 그것뿐입니다.

9.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뽑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다고 제대로 뽑고, 알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은 마땅히 이런 시국에 움직일 것입니다.

10. 우리의 손으로 뽑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손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

-청소년 인권 해치는 윤석열은 하야하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